



치료의 방법

경두개 자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자극할 위치를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자극의 강도, 주파수, 시간 등을 정한 뒤 자극 코일을 머리에 대고 자극 치료를 시행합니다. 일반적인 시술이나 주사처럼 신체에 통증을 일으키거나 견디기 힘든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극치료는 하루에 한번씩 시행하며 10일 동안 총 10회정도 시행합니다. 한번 시행할 때 치료목적에 따라 다르나 대략 15~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찾아오는 길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02) 970-8315

을지대학교병원 | 042) 611-3631

홈페이지 | www.emc.ac.kr

통합콜센터 1899-0001

예약상담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을지재단**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 |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 을지대학교병원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 범석학술장학재단 |
을지인력개발원 | 을지생명과학연구소 | 을지재단빌딩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재활의학과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



Rehabilitation
Medicine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란?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는 머리를 수술하지 않고 두피에서 뇌를 국소적으로 자극하여 뇌 질환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롭고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경두개 자기 자극은 전자기 코일을 이용하여 두피 외측에 단시간 지속하는 자기장을 생성시키고, 자기장 파동의 변동 에너지를 대뇌 피질로 전달하여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는 치료입니다. 자기 자극의 빈도를 조절하여 뇌세포를 활성화 또는 억제시켜 원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법은 미국을 비롯한 의료선진국에서 많은 연구를 통하여 효과가 알려졌으며 다양한 뇌질환 환자 및 관절근육신경 질환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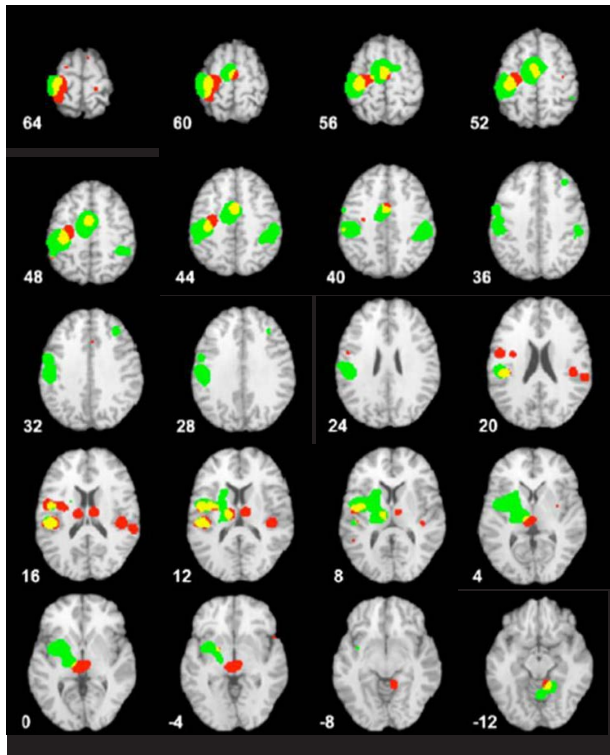
본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최첨단 경두개 자기 자극 장비를 갖추고, 많은 환자 분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의 치료 대상

뇌손상 후 마비된 운동기능의 개선

뇌졸중이나 뇌손상으로 인하여 팔과 다리의 마비로 인한 근력 약화가 있을 때 운동기능의 개선을 위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마비뿐만 아니라 근경직이 심하여 움직임이 제한될 때 경직의 완화와 마비 후 통증의 조절에도 사용됩니다.



기능적 뇌자기공명 영상검사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의 효과

인지기능의 향상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의력,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에도 약물치료와 더불어 자기자극치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및 수면장애

일차적인 우울증 및 수면조절장애의 경우에 치료효과가 증명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다양한 신경언어장애, 실어증, 인지저하를 포함한 의사소통장애, 마비말장애 등 여러 언어장애에 대하여 뇌의 언어중추를 자극함으로써 언어기능의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타

소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팔다리의 떨림, 과도한 흔들림으로 인해 보행이 어렵거나, 균형잡기가 매우 어려운 증상 등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